



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 먼저 인천경제청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해 IFEZ를 K-바이오를 선도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연구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바이오 의약 연구~생산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앵커 기업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확대 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 또한 바이오 공정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 원부자재 공급망 확대에도 노력한다.
- 스마트 제조와 관련해서는 미래형 모빌리티 및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 센터와 스마트 모빌리티 테스트 베드 구축, 로봇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수소 연료전지 분야 밸류체인 강화를 추진한다.
- 항공·복합물류는 공항경제권과 로지스틱스(Logistics) 4.0 구현을 목표로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상에 참여하고 항공 정비산업(MRO)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복합물류 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기반 물류산업 생태계 구현에 나선다.
- 지식·관광서비스는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립 등 패션·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국제기구와 연계한 대규모 국제회의 컨벤션 개최를 통한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뉴딜 등을 추진한다.
- 이같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2031년이 될 경우 투자유치 25조원, 입주 사업체 5,114개, 일자리 창출 11만5천여개에 달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리나라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주요 목표 종합 】

- ▶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9.62조원 : ('20) 16.03조원 → ('31) 25.65조원
- ▶ 사업체 1,749개 추가유치 : ('20) 3,365개 → ('31) 5,114개
- ▶ 일자리 22.3천명 창출 : ('20) 92.8천명 → ('31) 115.1천명

- 인천경제청은 이와함께 △GTX-B 노선 건설 및 송도환승센터 구축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IFEZ 스마트시티 특화모델 브랜드화 등 스마트시티·고품격 경관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 또한, 핵심 전략산업 육성의 추진체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책연구기관, 산학협력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협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IFEZ-군구협의회, 산업육성기관협의회, 핵심전략산업 연대협력회의를 각각 운영해 발전계획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IFEZ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을왕산 영상콘텐츠 혁신 클러스터를 신규개발 단위 지구 후보지로 보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급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성장 상황을 고려, 을왕산 일대에 영상콘텐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관광·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IFEZ 발전계획 발표에서 “앞으로 핵심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2031년까지 IFEZ를 인구 55만, 외투금액 200억불, 5천개 이상 기업 입주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